

## <미술과 건축: 1945년 전후>

남성택(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세기 초 서양 회화에서 투시도(perspective)의 전통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면,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구성(composition)의 전통 또한 무너지기 시작한다. 전통의 파괴는 새로운 전통을 탄생시킬 것이다. 신대륙(미국/뉴욕)의 젊은 예술가들이 Minimal Art, Pop Art 등을 통해, 구성 예술을 발전시켜온 구대륙(유럽/파리)에 대항하고자 할 때, 여전히 생존해있는 천재 피카소(Pablo Picasso)의 존재는 타도와 극복의 대상이 된다.

### Readymade

무명 예술가 뒤상(Marcel Duchamp)의 20세기 초반의 숨겨진 작업들이 뒤늦게 조명 받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화가였던 뒤상은 당시 산업이 만들어내는 기계들에 매료되어 그림을 그만 둔다. 그는 일상 속 오브제들을 선택해 예술적 작품으로서 전시를 시도하며 위상을 높이고자 시도한다. 그가 창안해낸 Readymade 예술은 사실 건축가의 작업과 흡사하다. 일례로 그의 대표적 작품 *Fountain* (1917)은 '건물'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변기, 즉 건축의 오브제였다. 일상적 공간 속의 기능 오브제를 비일상적 공간(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이 뒤상의 역할이었다면, 사실 이는 동시대의 건축가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20세기 산업이 만들어낸 형태들을 전시하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 Minimal Art

뒤상의 오브제가 공간 속에 자리잡는 방식에 따라 관찰자의 인식을 변화시켰다면, 삼차원적 오브제와 관찰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Minimal Art도 마찬가지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고 단순하나 단일한 형태(unitary form)를 선택하며, 특정한 시공간의 미장센을 통해 관찰자의 체험을 유도한다. 한편, 삼차원적 오브제와 관찰자 사이의 시공간적 체험은 매우 건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유사한 문제의식에 집중하는 현대 건축의 사례들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 Pop Art

선택(choice) 자체가 핵심이자 전부인 Readymade의 전략은, Pop Art로 이어진다. 대량 소비 사회를 상징하는 산업 제품들이 간밀하게 선택되어 그 형태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기계적으로 재현, 반복(repetition)된다. 반복에 의해 형성된 표면은 익숙한 형태를 낯설게 인식시킨다. 익숙한 오브제의 기계적 반복은 건축의 구축에 있어 흔한 기법이기도 하다. 일련의 현대 건축 작품들은 산업 재료들을 선택해 반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건축 전체를 형성시킨다. 이때, 재료는 더 이상 전체에 귀속되어 종속되는 요소(element)가 아니라, 독립적인 단위체(unity)이자 성장의 근본인 모듈이 된다.

## **Beyond Composition, or Non Composition**

이러한 방식의 예술 및 건축은 다음과 같은 관점들에서 더 이상 구성의 전통 속에 머물러있지 않다. 1) 선택의 결과로 결정지어짐으로 과거 작가(-창조주)의 완숙한 미적 균형 감각과 숙련된 (손)기술에 바탕을 두던 '구성'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다. 2) 오브제는 기존 맥락으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또는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전시되기에,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는 구성의 관점도 파괴된다. 3) 작품은 오브제와 관찰자간의 체험 변화를 전제하기에, '더 이상 더할 수도, 뺄 수도, 흔들 수 없는' 상태를 지향하던 구성의 미학이 적용 불가하다. 작가 스스로 관찰자였듯이, 작품의 관찰자는 새로운 작가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결과는, 열린 결론으로, 계속적 프로세스의 한 찰나일 뿐이다.